

2025 설날 가정예배

목 상 기 도 다 같 이

여호와여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가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신 앙 고 백 다 같 이

전능하시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 송 383장 /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다 같 이

1.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도움 어디서오니 천지 지은 주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네
나의 발이 실족 없게 주가 깨어지키며 택한 백성 항상 지켜 길이 보호하시네
2. 도우시는 하나님이 네게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너를 상치않겠네
네게 화를 주지 않고 혼을 보호하시며 너의 출입 지금부터 영영 인도하시리 아멘.

대 표 기 도 인 도 자
(가족중에서)

성 경 봉 독 역대상 4장 9~10절 다 같 이

9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10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설 교 야 베 스 의 기 도 인 도 자

역대상 4장에는 유다 지파와 시므온 지파의 족보가 나와 있습니다.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하는 식으로 40여 명의 이름이 나오던 중 9절에 와서 갑자기 야베스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야베스에게만 유독 “귀중한 자” 라는 귀한 수식을 붙여 주셨을까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그는 불우한 환경을 기도로 이겨낸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구하여 불행을 떨쳐버린 사람이 바로 야베스였습니다. 원래 야베스라는 이름은 ‘고통’ 이라는 뜻입니다. 그 어머니가 고통스럽게 낳은 자식이라 이름까지도 그렇게 지은 것입니다. 그는 부모의 축복보다는 한탄 속에서 자라났습니다. 커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름 때문에 많은 불이익과 조롱을 당했음에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그에게서 놀라운 점을 발견합니다. 야베스는 결코 자기에게 주어진 이름대로 살기를 원치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는 자신의 환경을 탓하지 않았고 부모를 원망하지도 않았으며 포기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자신이 믿는 하나님께 신뢰하며 나아가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혹 우리 중 누군가도 이런 아픔이 있는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만약 그런 문제로 여전히 힘들어 하고 있다면 그것을 극복하는 유일한 길은 무엇일까요? 바로 살아 계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으로 심령이 충만해지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분께 어떤 기도로 나아가야 할까요? 야베스는 하나님께 세 가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첫 번째로 야베스는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라고 기도합니다. 복을 구하는 야베스의 동기가 혼자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기서 “지역” 은 ‘땅의 경계’, ‘영토’ 를 의미합니다. 그 즈음 여호수아는 가나안을 정복하여 각 지파에게 약속의 땅을 분배하고 있었습니다. 야베스는 각 지파와 족속들이 땅을 분배받아 각자의 경계를 알리는 지계표를 설치하는 모습을 보며 그같이 구한 것입니다. 그런데 지역을 넓혀달라는 기도는 단순히 더 많은 땅을 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에 복을 주셔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삶을 살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지역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직장, 사업체, 공부, 연구, 자녀교육, 집안 살림 등 많습니다. 우리의 지역은 이 땅을 살아가는 터전이고 영향력을 발휘하는 기반이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릴 수 있는 도구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넓혀야 할 지경이 하나 또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기도의 지역입니다. 사실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는 기도하는 만큼 영적인 세계를 볼 수 있고 이 세상에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 늘 기도하는 사람은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야베스의 두 번째 기도 내용은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시기를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이란,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을 말합니다. 야베스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복에 복을 더해주시고 자신의 지경을 넓혀주신다고 해도, 주님께서 그 손으로 자신을 돕지 않으시면 복이 보존될 수 없음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야베스는 우리 삶의 심장과 같은 것, 우리를 띄게 하고 살아 있게 하며, 우리를 주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는 힘인 하나님의 임재를 기도제목의 핵심에 놓았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러한 기도가 살아 있습니까? 지금 내가 구하는 것이 혹시 하나님의 손이 아니라 내가 든든하게 의지할 수 있는 어떤 다른 것은 아닙니까? 그렇다면 다시금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받는 기도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야베스의 세 번째 기도내용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된 삶을 유지하기 위한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여기서 “환난”이라는 말은 ‘고난’, ‘역경’이라는 뜻도 있지만 ‘나쁘다’, ‘악하다’라는 의미로도 사용됩니다. 따라서 이 기도는 사탄의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해달라는 뜻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이것도 우리가 반드시 드려야 하는 기도입니다. 교회를 다니는 많은 이들이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에는 하나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경험한 후에 마귀의 유혹에 넘어져서 하나님을 슬그머니 떠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업이 잘되다 보니 바쁘다는 이유로, 건강이 회복되다 보니 놀러 다니느라 유명해지다보니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잠시 누리는 복 때문에 영원한 복을 차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야베스의 기도를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그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은 야베스에게 구하는 모든 것을 응답하셨습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응답입니까! 그러나 우리는 야베스가 기도 응답을 받았다는 사실에만 주목할 것이 아니라, 그가 드린 기도와 그의 마음의 중심을 배워야 합니다. 그럴 때 나의 인생을 ‘복의 통로’요 ‘복의 근원’으로 사용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주시길 것입니다. 올 한해 이 은혜를 누리시는 우리 가정 되기를 소망합니다.

합심기도 다 같이

1. 2025년 새해 우리 가정이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승리하게 하소서.
2. 믿음의 세대 계승을 이루고 복의 통로가 되는 가정되게 하소서.
3. 올 한해 가족 구성원들 모두가 영육간에 강건하고 평안하게 하소서.

주기도문 다 같이

